



HOME > 경제 > 산업

농어촌공사-의령군 읍면발전 방안 찾기 나서

윤 안지산 기자 | 승인 2022.02.17

농촌협약 공모 준비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의령군이 '농촌협약' 공모 준비를 위해 의령읍·부림면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의령군과 균형발전·농촌분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공모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태완 의령군수, 한국농어촌공사 KRC 지역개발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의령군의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협약추진위원회·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조직 구축,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 읍면과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적정성을 검토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5년간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아 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의령군은 '새롭게 도약하는 의령군'을 목표로 의령읍, 부림면 2개 생활권에 △365생활서비스 강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로컬 산업육성 △역사 가치 콘텐츠 발굴 △지역공동체 육성 등을 구상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으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